



‘아름다운 세상’ 을 위한 이야기 셋

우리 학교 1학년 아이들은 도덕교과 수행평가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를 1, 2학기에 실시했습니다. 프로젝트 활동과 수행평가는 끝났지만, ‘아름다운 세상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실천은 계속 이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며 격려하고 희망을 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사람다운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듭시다.

■ 이야기 하나> ‘작은 일’에서부터 꾸준히 - 꽃씨를 뿌리는 할머니.



할머니는 열차를 타고 가시며 차창으로 뭔가를 뿌리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것이 뭐냐?”고 묻습니다. 할머니는 ‘꽃씨’라며 보여주었습니다.

“그걸 왜 뿌리십니까?”

“글쎄요. 언젠가는 이 철도변에도 꽃이 피겠죠. 우리 딸이 이 열차를 타고 엄마 보러 오갈 적에나, 훗날 내 무덤에 찾아 올 적에나, 예쁘게 피어있는 꽃들을 보며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며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게 철도변이 꽃이 활짝 핀다면, 할머니의 딸만 행복하겠습니까?

할머니는 젊었을 적에는 집 마당에 꽃밭을 꾸몄습니다. 그렇게 가꾼 꽃밭은 할머니에게 위안이 되고 벌, 나비에게는 희망이 되었답니다. 꽃이 쳐도 슬퍼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꽃씨를 받아 두었데요. 이듬해 봄이 오면 꽃씨 주머니를 들고 밭일이나 나들이 하실 적마다 마을 골목에 꽃씨를 뿌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온통 꽃동네가 되었답니다. 이제 할머니는 멀리 시집간 딸내 집에 오가실 적에도 마을의 꽃씨를 뿌리고 다니십니다. 아름다운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 진다는 것을 믿는 거지요.

■ 이야기 둘> ‘지금’ 최선을 다하기 - 한 벌새의 이야기

아름다운 숲 속에 불이 났습니다. 날개 달린 새들이 제일 먼저 날아가 버렸습니다. 발 달려 뛰는 놈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느리고 기는 것들은 겨우 구덩이를 찾아 숨었습니다. 그 사이에 불은 점점 크게 번져 갔습니다.

오직 벌새 한 마리만이 바쁘게 날아다니며 냇물을 한 입 가득 물고 와선 불을 끄려고 애씁니다. 작디작은 덩치에 한 입 물을 물고 왔지만 그걸로 어떻게 숲의 불을 끌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벌새는 포기하지 않고 총알같이 빠르게 수백 번을 오가며 물 한 두 방울씩을 뿌렸답니다. 많은 새들이 나무랍니다. 덩치 큰 것들은 비웃었습니다.

“네가 그런다고 불이 꺼지겠나? 바보 같은 짓 이제 그만 뉘.”

그래도 벌새는 가쁜 숨을 몰아내면서 미소 띠며 말했답니다.

“그래도 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 이야기 셋 > ‘나부터’ 희망을 갖고 함께하기

“아름다운 세상? 내 혼자 애쓴다고 세상이 뭐 달라질까?” 의심하거나 약한 마음 먹지 맙시다. **I BEST 정신(I, basic, easy, small, today 부터)**으로 무장하여 희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면 분명 세상은 아름다워 질 것입니다. **I BEST !!**

나 하나 꽃 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